

광양수산물유통센터, 시민복합문화시설로 자리매김

편의시설 입찰 범위 단계적 확대
역량 있는 개인·단체 참여 유도
킹크랩 등 시중보다 가격 저렴
“지역 경제 활성화 시설로 부상”

광양시가 해양수산부, 전남도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광양수산물유통센터가 지난해 12월 개장 이후 전남 동부권 수산 유통 거점 단지와 시민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만선의 꿈’이라는 주제로, 가득 잡은 물고기를 싣고 입항하는 배의 형상을 띤 광양수산물유통센터는 주요 수산물 산지에서 거리가 있는 광양시의 지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특색있는 독자적 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시설과 더불어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행사 공간이 마련된 시민복합문화센터로 건립됐다.

광양수산물유통센터는 소상공인들이 여럿 입점해 운영되는 다른 지역의 유통센터와 차이가 있다. 광양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했으며 지정한

1명의 시장도매인이 유통시설 전반을 운영하도록 했다.

개설자인 지자체가 지정한 시장도매인은 산지 출하자의 수산물 매매를 중개하거나 직접 매수를 통해 중소 상인에게 도매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운영한다. 거래 과정에서 가격 조정이 가능해 경매제에 비해 공급가격이 안정적이며 유통단계를 축소해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 측면에서 혜택이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과정, 가격안정 측면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해 전국에서 소수의 지자체만 도입한 어려운 제도임에도 광양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품질 좋은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를 선택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된 업체는 지역주민 15명을 고용해 유통센터를 운영 중이다. 운영 경험 부족으로 개장 초기 수산물 유통·판매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개선해 현재는 높은 품질의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데 목적을 두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광양수산물유통센터 내 도매시장 판매 품목 중 킹크랩, 랍스터, 대게 등 일부 특화 품목은 시중 가격과 비교했을 때 20~30%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활어 등 다른 품목들도 소매가격이 10~15% 낮게 형성돼 있어 가격경쟁력이 있다.

개설자인 광양시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해양오염으로부터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기별 다량 출하 품목에 대해 중금속 및 방사능 안전성을 검사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유통되는 품목들의 높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 보장된 안전성과 품질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인근 중소상인과 도매거래가 활성화되면 전남 동부권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광양수산물유통센터가 가진 잠재력에 비해 현재 객관적인 운영 실적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유통센터 내 편의시설 9개소 중 8개소가 아직 입점이 되지 않아 편의시설과 연계를 통한 센터의 전반적인 활성화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개장한 지 8개월 남짓한 시간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 센터의 미래를 가늠하기에는 시기가 이르지만,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인 만큼 활성화를 위해 유통센터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응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게 광양시의 입장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수산물 유통시설로만 인식되는 유통센터의 이미지가 문화가 공존하는 장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며 “센터 입점을 독려하기 위해 관내로 제한되어 있던 편의시설 입찰의 범위를 전라남도부터 전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제한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역량 있는 개인과 단체가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적 경기침체 여파로 개장 초기 운영이 어려운 시점이나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다각적인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 유통센터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길 바라며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 시설로서의 부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광양=안영준 기자

직능·사회단체와 소통 간담회
장흥군 ‘열린 군정’ 실현

김성 장흥군수는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6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직능·사회단체와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소통간담회는 재향군인회를 시작으로 (사)전국아·통장연합회 장흥군지회, 자율방범대 연합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조산료 경영체,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기업인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각 단체별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한 이번 자리는 안보교육지원, 지방소멸대응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공모사업 확보 등 다양한 주제에 놓고 의견을 나눴다.

출산장려 및 주거정책 지원, 낚시산업 등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하계조산료 재배 확충 등 분야별 군정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군은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이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평소 군정 참여의 기회가 적은 다양한 계층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딥페이크 피해 상담·지원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을 활용한 성적 영상물 등이 확산됨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위한 전화상담(061-863-1318)을 24시간 운영한다.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되어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디지털 성범죄피해지원센터로 피해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는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상담(전화 02-735-8994) 가능하다.

민간단체로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는 피해자 상담, 수사·법률 지원을 하며,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상담 채널 “디포유스”(카카오톡·인스타그램@d4youth), ‘십대여성인권센터’(카카오톡@10upsns, 전화 010-8232-1319)을 통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는 (사)행복누리-목포여성상담센터(061-283-4510)에서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성적 합성·편집물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심리상담, 심신회복 캠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흥=김전환 기자



여수시 화정면이 지난달 29일 여수해양환경인명구조단 주관으로 화정면 백야마을 몽돌해변 일원에서 해양 청결활동을 펼쳤다.

여수시 제공

여수 섬마을 화정면, 해양쓰레기 줍기 봉사

여수시화정면(면장 배도선)은 지난달 29일 여수해양환경인명구조단(단장 박근호) 주관으로 화정면 백야마을 몽돌해변 일원에서 해양 청결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 여수해양환경인명구조단

과 한영대학교, 여수꽃사모, 무지개음악단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폭염 속 해양쓰레기 줍기를 진행했다.

또한 금호석유화학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를 어르신들께 대접하고 풍성한 공연으로 종식 봉사를 마쳤다.

박근호 단장은 “봉사자들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직접 청화 활동에 참여하니 뿌듯하고 즐거웠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와 돕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몽골서 농수산물 특산품 홍보·판촉

고흥군이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4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시 내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코리아 위크(KOREA WEEK) 2024 행사에서 고흥 농수산물 홍보 및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코리아 위크(KOREA WEEK) 2024는 몽골 대사관 주재로, 케이팝(K-POP) 공연, 태권도, 전통무용, 케이푸드(K-FOOD) 부스 등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매년 한국문화를 몽골에 알리는 주요한 행사로 자리잡았다.

이번 행사는 (주)미니텔그루와 함께 고흥 유자차를 비롯해 고흥 쌀, 김, 곡물당, 유자에이드, 유자잼 등 시식 및 시음을 통



해 현지 몽골인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현지 인기 덕분에 행사 동안 고흥군 농수산물 홍보부스에 1000여 명이 방문하였고, 5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

으며, 현지 언론사 세 곳에서 취재하기도 했다.

특히 (주)미니텔그루와 쌀 수출을 위한 실무협의를 통해 앞으로 고흥쌀의 몽골 진출에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군에서는 수출 포장재 개발 등 몽골 현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미니텔그루의 사루을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우수한 고흥 농수산물이 몽골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어 “몽골인이 고흥 농수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장을 100개 점까지 점차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송민섭 기자

보성군, 레저뱀배대회 개최
장양어촌체험마을

보성군은 오는 7일 장양어촌체험마을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보성별교갯벌을달리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축제 및 제9회 별교갯벌 레저뱀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청소년 댄스 경연팀 공연과 한국 타악의 좋은 친구들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부 전통뱀배 경기, △10종 레저뱀배 경기, △어업유산 전시·홍보관, △한국의 갯벌 VR 체험, △갯벌 생물 잡기 및 무료 시식, △어린이 무료 볼 풀장, △페이스페인팅 등 29개 행사를 추진한다.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관광객들은 보성군청 홈페이지나 네이버폼을 통해 사전접수를 하거나 행사 당일 10시까지 현장 접수하면 된다. 대회별 프로그램마다 푸집한 상품과 시상금도 준비돼 있다.

‘제9회 레저뱀배대회’는 별교갯벌 레저 뱀배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보성군이 후원하며,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 ‘보성 뱀배어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보성의 대표 특산물인 별교꼬막을 캐기 위한 이동수단인 ‘뱀배’를 타고 속도를 겨루는 이색적인 경기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또한, 부대행사로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열리며, 고운 펴를 자랑하는 갯벌 속에서 이뤄지는 갯벌 풋살 대회, 보성별교갯벌에 서식하는 짙뽕어와 칠게를 맛보는 무료 시식 부스 등을 운영해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9월 6일에는 ‘보성 뱀배어업의 중요성과 보전 가치’를 주제로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최근 동향, 여차만 해역 보성별교갯벌의 가치, 뱀배를 이용한 보성지역 갯벌어업의 세계적 중요성과 가치 등을 논의하는 ‘뱀배어업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